

청년주보



캘리 | 이아미카 사진 | 배 리노 신부

입당송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 이사 60,1-6

화답송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에페 3,2,3-5-6

복음환호송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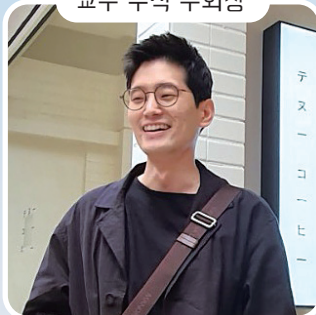
제28대 서울대교구 청년연합회를 소개합니다.

교구 회장



손희현 라파엘
(수궁동 본당)

교구 수석 부회장



서진우 리노
(동작동 본당)

교구 부회장



박수현 아네스
(구로2동 본당)

본당 청년들을 대표하는 청년연합회가 모여 지구 청년연합회를 이루고,
지구 청년연합회가 모여 서울대교구 청년연합회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28대(25년도) 교구 회장단**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희망의 경배를 직접 드리며 세상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용기를 청하는 순례자



박민재 미카엘 신부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우리는 오늘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들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을 경축하고 세상에 그 기쁨을 선포하며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이사야 60,3)고 떠오르는 빛을 노래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에페 3,6)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우리는 ‘온 세상에 드러난 주님’의 의미를 상기하며 복음에 머뭅니다.

헤로데는 ‘스스로 빛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드러냅니다. 본인의 빛무리 밖에서 그들 눈에 버림받고 울부짖는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다른 이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에페 3,6)은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진정으로 드러나는 빛으로 자신만을 기반으로 여기는 탐욕, 억압, 분열, 거짓, 불의를 송두리째 불살라 나눔, 섬김, 화해, 진실, 정의를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몸과 마음의 안정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을 때 안심하게 됩니다. 이에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우리의 인간적 나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나약함에 매이지 않고 세상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려움을 겪어낼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분께 희망의 경배를 직접 드리며 세상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용기를 청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희미하게 여겼지만 가장 깊이 스며든 빛으로서 온 세상에 드러나신 주님께 희망의 경배를 직접 드립니다. 세상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용기를 청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일어나 움직이는 순례자들입니다.

이에 우리는 당신께 드린 예물을 넘어서 당신 자신을 구원의 예물로 내어 주시는 성체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성찰과 함께 당신께서 보여주는 별과 같은 구원의 삶을 묵상하고, 묵상이 담긴 삶의 실천에서 빛을 만나는 체험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평화로우니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머문 자리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포근한 이불에 누워
지나간 하루를 생각하다보면
평범했던 모든 일상 속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은별 아녜스 / 중곡동 성당]



초대합니다



오늘의 복음(마태오 2,1-12)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선물하신 말씀**을 만나러 오세요.

**오늘 나에게 선포된 말씀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세상과 연결하는 기도를 바쳐봅시다.**

더없이 기뻐하였다.
(마태 2,10)

주님 성탄 대축일이 지나고 나면 저는 '우리에게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을 올바른 마음으로 기다리며 맞이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대림 시기를 다른 때보다 거룩하게 보내고 싶었던 욕심에서 비롯된 후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말씀의 동방 박사들을 보며 이 욕심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아기 예수님을 뵈기도 전에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한 동방 박사들과 달리 저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삶의 중심을 또다시 저의 마음과 행동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선행을 하겠다는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맛갓은 예물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을 맞이해 다시금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기쁨의 신앙인으로서, 이 기쁨마저 아기 예수님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 김혜수 크리스티나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2)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밤하늘에 떠오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며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고, 별이 멈춰 선 것을 보고는 더없이 기뻐합니다. 천사들은 찬미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온 누리의 임금님께 경배합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떠오른 별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별이 그 빛을 잃는다면 모두 소용없는 일일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여기 계시다고 알릴 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별은 제 역할을 위해 죽는 날까지 자신을 불태우며 밝은 빛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별을 생각해 보면 그다지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나 희미하게 빛나는 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기도해 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당신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밝은 별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 오예찬 디스마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저희를 살리기 위해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게 하소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르신
당신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그들과 기쁨을 나누는 하느님의 도구로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온 누리의 임금이신 주님,
자격 없는 저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실 당신을 기다리오니,
제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밝은 별이 되게 하소서.
저의 자그마한 사랑과 애덕으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당신께 이끌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나이다.





24년에서 25년으로 서울대교구 청년연합회 회장

2024년도 애쓰신 **27대 교구 회장 이상옥 토마스 회장님**의 소감과
2025년을 이끌고 나가실 **28대 교구 회장 손희현 라파엘 회장님**의 다짐을 만나 보겠습니다.



27대 (24년) 회장
이상옥 토마스

Q.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구 회장단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임원들이 봉사를 하면서 점점 지쳐갑니다. 임기가 끝난 후 임원들이 냉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24년도 교구 회장을 시작하기 전 이 질문과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하는 청년 임원들이 교구 행사에 참여하여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의 입장에서 쉬었다 가는 행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임원 및 청년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교구 회장단이 늘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항상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Q.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건가요?

16지구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구 상임위에 참여하면서는 주변에 지인도 생기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교구 임원진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후 총회 시기 때, 24년도 회장님과 담당 신부님의 권유로 '어쩌면 지금 아니면 못해보겠다', '하느님이 나를 이 자리에 쓰이게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한 해를 만들어보고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28대 (25년) 회장
손희현 라파엘

지난 2024년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 주신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25년도도 하느님의 젊은이로서 힘차게 나아갈
여러분의 행보를 '청년주보'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지금입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부서원 모집

내용 주님의 도구로써 청년부와 함께할 부서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 밴드 유빌라떼, 주보편집부, 미디어컨텐츠부, 기획부
지원 문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02-762-5071~2